

12. 대구광역시주식회사대구전시컨벤션센터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6월 11일
대구광역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07년 6월 11일 회부
- 상정일자
 - 제1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2007. 6. 22) : 상정, 원안가결

2. 주요골자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운영)
· 주식회사대구전시컨벤션센터 → “주식회사 엑스코”로 명칭변경.

3.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본부장 김상훈)

-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주식회사대구전시컨벤션센터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종합유통단지 내에 있는 전시장의 명칭이 그 동안 회사상호인 “대구전시컨벤션센터”와 회사로그인 “엑스코”로 혼용하여 불려지고 있어 고객들의 혼란은 물론 다른 도시의 전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전시회 개최 등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이 알려진 ‘엑스코’ 단일명칭으로 변경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전시장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임.
-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용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의 인용법령을 개정된 조문으로 변경하고, 제명 및 안 제1조와 제2조의 주식회사대구전시컨벤션센터의 명칭을 주식회사 엑스코로 변경하고자 함.
· 그리고 부칙안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음.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2개의 회사명칭으로 혼동 사용하던 것을 단일명칭 ‘엑스코’로 변경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홍보효과를 거양하여 전시장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광역시주식회사대구전시컨벤션센터설립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검토보고 요지(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최해남)

- 본 개정조례안은 북구 산격동 종합유통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대구전시컨벤션센터의 명칭이 영문약칭인 “엑스코”와 혼용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타 도시의 전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전시회 개최 등에 불리한 실정임.
따라서, 동 전시컨벤션센터의 국내외 인지도 향상과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명칭을 종전의 주식회사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불려지고 있는 “엑스코”로 변경하려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 안 제1조 중 “제79조의2”를 “제77조의3”으로 개정한 것은 2002. 3. 25자로 지방공기업법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며
· 안 제1조와 안 제2조 중 “주식회사대구전시컨벤션센터”를 “주식회사 엑스코”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참고로, 서울의 “(주)한국종합전시장”을 “(주)코엑스(COEX)”로, 부산의 “부산전시컨벤션센터”를 “(주)벅스코(BEXCO)”로, 경기 고양의 “한국국제전시장(주)”을 “(주)킨텍스(KINTEX)”로 상호를 변경하여 전시장명과 회사상호를 영문약칭으로 통일화하는 추세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대구전시컨벤션센터”를 “엑스코”로 회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요 지 | 답 변 요 지 |
|---|---|
| ○상법상 주식회사인 엑스코의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경북 통상(주)에 3억원을 출자할 예정인데 경북도에서는 엑스코 확장사업에 미온적임. 대구경북이 협력하여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 ○엑스코 확장사업을 통해 출자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경북도에서 내부적으로 이견이 다소 있는 것 같으나,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100억원 출자하도록 유도하겠음. |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